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성인들의 자존감 차이

홍 기 원[†]

호서대학교

한 영 석

광운대학교

한국 성인의 자존감이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1318명에게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채는 척도들을 제시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다른 자존감을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인들 중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고, 양성 별로 중요하게 보는 요인들도 다르게 나왔다. 연령집단 간에는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 요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밖에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자존심을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한 자존감의 요인을 본 결과에서도 60% 이상이 자존감의 하위요인들과 관련이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자존감의 하위 요인들도 양성에 따라 내용은 다르게 나왔다. 또,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보다 적은 수의 고정관념적인 요인들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낸 원인에 대한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존감, 심리적 안녕감, 인구학적 요인

* 이 논문은 2004년도 호서대 교내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홍기원,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110-745) 충남천안시 안서동 산 120-1

E-mail : kiwhong@office.hoseo.ac.kr

자존감에 대한 구미의 연구들은 크게 자존감 자체를 측정하는 자존감 차원에 대한 연구와 자존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밝히려는 연구, 그리고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 결과요인으로서 행동적, 심리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와 자존감에 대한 발달적 변화와 성별 연령별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로 나누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이와 같이 자존감에 대한 연구들이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으며,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 분야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자존감에 관한 연구들을 비평한 문헌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자기개념 또는 자존감에 대해 개념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구성개념을 측정, 평가하는 방법이나 도구에 있어서도 타당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지금까지의 자존감 또는 자아개념과 관련된 연구에서의 일관성 없는 결과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Wylie, 1979).

우리나라에서도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은 대체로 아동 또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자존감연구의 시금석이 될 척도마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및 한영석(미발표)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차원을 밝히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FGI를 통해, 148개의 자존감특성 문항을 도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1개 하위요인과 7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실증적 결과인 위 11개 요인들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내용 중심의 질적 분석 결과 도출된 14개 요인들과 대부분 유사하다. 단지 14개 요인구조에서의 인품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 의한 인정 및 자신의 능력/성취 요인의 일부 문항이 자신 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대인관계에 의한 인정요인이 매력-외모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나누어 14개에서 11개 요인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11개 요인은 지금까지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측정연구들에서 제안된 차원보다 다양하고, 차별적인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청년기를 거치면서 통합된 자아상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연령증가와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자아지각에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미발표).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인 표집을 통하여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존감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경제수준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존감을 다룬 선행연구들

자존감과 성취결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축적되면서, 자존감은 청소년의 적응에 필수적으로 지목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곽금주, 김근영, 1997).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이 학업성취와 직업성취 같은 교육적 결과와 이를 매개하는 학습동기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Olivarez, 1985; Smith, 1985; Tucker, 1985).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자존감을 갖는 사람들은 포부수준이 높고(Baumeister &

Tice, 1985),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점을 피하려 하지 않고 인정하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Ellicott, 1984). 또한 낮은 자존감은 폭력행동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Anderson, 1994).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은 아내폭력(Gondolf, 1985), 형제폭력(Wiehe, 1990), 무장 강도(MacDonald, 1975), 테러(Long, 1990), 살인(Kirschner, 1992) 등의 범죄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직무수행과 직무만족에 자존감이 미치는 영향을 통합분석을 한 Erez, Judge와 Timothy(2001)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에 도전해서 자신이 숙달할 기회와 이익을 얻을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가치가 없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흥미와 관련된 상황을 선택하여 더 높은 직무만족 수준을 이끌어 준다고 주장하였다.

자존감을 다면·위계적 구조로 가정한 양계민·정진경(1993)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학문적 자기의 한 영역인 신체적 매력 지각 정도가 전반적 자존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고,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에 근거해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Cooley, 1902; 홍성열, 1998)들은 사회화의 대행자로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을 다루었다. 부모의 양육과 관련해서 강영자(2000)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부모로부터의 애착이나 지지경험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취 관련 행동에 크게 영향

력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기사회화 관점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대행자의 역할보다는 아동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비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아동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Diane & Ruble, 1986; 김문혜·강문희, 1999). 역량지각, 사회적 지지, 신체외모 등의 선행요인을 종합해서 이들 요인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김문혜·강문희(1999)는 이들 요인 모두 자존감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고, 아동과는 상이한 인과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아동들의 자존감에 가장 강력한 선행요인이 신체외모에 대한 지각임을 밝혔다.

자존감에 대한 성별차이 연구로서 Wigfield(1991)가 개발한 수학과 영어, 운동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능력 척도와 Harter(1983)의 전반적 자아가치 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능력에서는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반적 자아, 신체능력, 수학능력은 남아가 여아 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영어는 여아가 남아의 경우보다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주리(1994)는 Harter(1983)의 역량지각척도를 이용하여 아동 및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신체적 역량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나,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성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진화와 전경숙(1995) 역시 아동 및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신체적 역량 및 운동적 역량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나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및 전반적 자아는 성별과 무관함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기정과 이진만(199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학업적 자아만 남아가 여아보다 높으며 비학업적 자아 영역에서는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 정의 자체에 대한 논쟁, 자존감 차원에 대한 논쟁, 그리고 인구학적 차이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왔다.

연구문제의 제기

국내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의 다차원적 개념을 밝힌 연구로서 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및 한영석(2004)은 자존감을 고양과 상실의 2차원적 구조로 정의하고, 자존감 고양의 요인은 ‘칭찬-인정’, ‘인기’, ‘뽕사’, ‘성취’의 4개 차원으로, 자존감 상실 차원은 ‘무사불인정’, ‘상대적 박탈’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자존감의 고양차원이 자존감의 상실차원보다 다양한 하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제안한 자존감의 2차원적 구조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포함될 필요가 있는 배우자나 부모 등의 가족과 관련된 차원이나 경제력과 같은 현실 생활에서의 자존감 차원이 생략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일관되게 도출되는 신체적 매력 등과 같은 중요 차원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다. 또한 개발된 자존감 척도에 대한 타당도 분석이 빠져 있어서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였다.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및 한영석(미발표)은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구체적인 자존감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문항화하여 자존감의 척도를 개발하고, 유사척도인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와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와의 관련성을 통해 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FG를 통해, 148개의 자존감특성 문항을 도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 하위 요인과 7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존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조사를 통해 도출된 11개 요인은 ①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② 부모에 의한 인정, ③ 국가 자부심, ④ 사회로부터 인정, ⑤ 배우자에 의한 인정, ⑥ 타인으로부터 인기, ⑦ 신체적 매력-외모 ⑧ 자녀에 대한 만족, ⑨ 자신의 성취, ⑩ 경제력, ⑪ 사회봉사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실증 결과인 위 11개 요인들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 내용 중심의 질적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14개 요인들과 대부분 유사하였다. 단지 14개 요인구조에서의 인품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 의한 인정 및 자신의 능력/성취 요인의 일부 문항이 자신 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포함되었고, 대인관계에 의한 인정요인이 매력 외모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요인으로 나뉘어 14개에서 11개 요인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11개 요인은 지금까지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 측정연구들에서 제안된 차원보다 다양하고, 차별적인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청년기를 거치면서 통합된 자아상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연령증가와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자아지각에 분화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미발표).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인구학적인 구분에 따라 다른 자존감의 정도를 보이리라고 예언하였다. 다음에는 이들 여러 하위변인에 따라 상이한 자존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양성평등과 자존감에서의 성별차이

국제기관에서는 남녀의 성평등 수준을 각종 지표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남녀 간의 성취 수준의 평등 정도를 성별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성별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로 제시하고 있다. 1997년 자료에 의하면 성별 평등지수에서는 한국은 130개 국 중 35위, 성별 권한 척도에서는 116개 국 중 7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지수는 경제협력기구 회원국들 중에서는 최하위인 것이다(전방지, 1998). GDI와 GEM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삶의 주요 영역을 인간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에 토대를 두고 측정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경제 성장이나 복지모델의 개발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다. 즉 한 국가의 진정한 부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가 아닌 인간이라는 인식이고 인간으로서 양성의 평등은 경제성장, 정치적 자유, 문화적 가치로의 확대를 통한 구현을 요구한다는 생각이다(UNDP, 1995).

성별평등지수는 인간개발패러다임의 주요 영역인 세 가지 영역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즉, 건강한 삶, 지적인 삶,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는 삶이 그것이다. 건강한 삶이란 출생시의 평균 기대 수명을, 지적인 삶은 교육 기관에의 취학률을, 품위를 유지하는 삶은 국민소득을 주요 내용으로 낸다. 이들 세 지표를 동일한 척도로 환산하고 이로 나온 지표들을 평균한 것이 인간개발 지수이고 이를 남녀별로 산출한 것이 성별 평등지수이다. 즉, 평균수명, 교육수준, 소득수준의 세 영역에서 남녀별로 산출하되 성별평등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여 불평등한 만큼 인간개발지수에서 하향조정된

값을 성별불평등지수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GDI는 특정 사회의 인간개발 수준이 낮은 만큼 낮아지는 동시에 성별 격차가 크면 더 낮아지게 된다(UNDP, 1995). 우리나라는 1997년에 0.826으로 130개 국가 중 35위로서 전 세계의 평균 수준을 웃도는 위치에 와 있다. 전세계의 평균은 0.6이고 0.5이하인 나라도 45개 국가나 되기 때문이다. GDI값이 1이면 완전한 양성평등이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스페인도 0.919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조사된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의 능력개발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인간개발지수와 성별평등지수 간에 격차가 1997년에 .4로 나와 크다는 점이다. 평균적인 인간개발 수준에 비하여 성평등 수준이 낮음을 보이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두 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 국가발전 정도와 양성의 평등의 정도는 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의 경우는 인간개발 수준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은 낮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수준, 평균수명에서는 양성 간에 차이가 별로 없으나 소득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온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가 자존감의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을 시사한다.

성별권한척도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결정권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이 개발된 능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여성들이 정치, 경제, 기타 전문직에서의 참여도를 재게 된다. 여기서도 세 지표들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낸 뒤에 불평등기피율을 2로 정하여 평균 수준과 성별격차 간의 상쇄 비율을 계산한다. 1997년에는 한국 여성의 성별 권한 척도는 0.302로서 116개 국 중 73위에 자리매김을 하였다. 여성권한척도와

성평등지수 간에 직접적인 비교는 구성변인들이 다르므로 어렵지만 두 지표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능력 발휘가 타국에 비하여 크게 부진함을 보이는 것이다. GEM의 순위가 낮아진 것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부진한데 원인이 있다. 구성지표 중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97년에 3%에 불과하고, 여성 전문직 비율은 42.4%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GEM 순위도 그 나라의 산업화와는 낮은 상관을 보인다. 즉,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여성의 권한이 낮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국들의 여성의 정치, 경제 분야의 참여 수준이 특히 낮다.

여성권한척도와 성평등지수의 하위 영역들에 대한 가중치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포함된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들인 가족, 공동체, 문화영역들이 빠져 있는 것은 두 지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두 지표가 보이는 양성간의 차별에 대한 정도는 여성의 지위를 일견할 수 있는 한 수단일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양성의 자존감에 대하여도 시사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별권한 척도 상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진출 부진이 이와 관련된 자존감 영역에서의 낮은 점수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정재구와 선미영(1996)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아개념(신체, 가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자아개념의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가 대학생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또한 미국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남녀별 신체 만족도에 대한 신체적 자아는 전체적으로 남

녀간 결과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신체 부분에 대해 여자보다 남자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tanford와 Donovan (1984)의 여성이 특히 자기 몸의 특정 부위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 그 왜곡을 자신의 외모 전체를 일반화시켜 자기의 몸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심화시키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일치된 것이다. 특히, 신체적 자아에 있어서 전체적인 몸매, 얼굴, 사지, 몸통, 기타 등 몸통 영역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남녀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적어도 신체적 측면에서의 남녀의 자존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예언할 수 있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수준별 자존감 차이

자존감에서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 중에는 학창시절의 특정한 과목 수행에서의 우열로 인한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기 이후에 이를 수록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낮은 성적이 여학생들의 남학생들과 비교한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춘기 이후의 자존감에서의 성차는 더 어린 시절의 부모들의 양육 방식과 어울려져 분야별로 더욱 자존감의 성차를 가져올 수 있다(Lips, 1999). 자존감은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수정되기는 하지만 주로 성인기 초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경험을 통하여 고착되기 쉽다. 어릴 적 학업성적의 부진, 동료들로부터의 소외, 공포, 실망 등이 자신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쉽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적절하지 못한 학교체제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며, 남성들은 어릴 적에 학창시절에 상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상적인 남성은

독립심과 자력으로 무엇을 하도록 권장되면서 어릴 적 학교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학교생활을 요구 받아 혼란을 겪기 쉽다. 이후의 중년기까지도 남성은 현실과 타인의 기대 간의 불일치에 따른 환상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자존감은 관계성에만 근거하지 만 그러한 관계가 될 중요한 성취와 유의미한 일을 통하여 유지되는데 비하여 남성의 자존감은 성취가 자존감의 토대이면서 개인적인 관계와 소속감이 더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다 (Anderson & Hayes, 1998). 이와 같이 성장 단계에 따라 자존감의 원천은 변화될 수 있으며 남녀에 따라서 다른 측면이 부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녀를 막론하고 자기 가치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취와 일에 관련된 활동으로 드러났다. 양성 모두 자존감의 핵심은 학창시절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의 차이를 말한다면 여성은 배우자, 부모, 그리고 결혼과 같은 친밀한 관계가 일보다는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에 될 중요한 원천으로 여긴다. 이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는 자존감의 주요 원천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남성들에게서도 대인관계가 자존감의 주요 원천은 못되지만 이전의 보고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 모두 자녀 양육, 친교관계가 자기 가치감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주로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부담이 지워지고 있어 양성 간에 차별적인 짐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보듯이 자존감은 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이에서 파생되는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른 자존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성인집단에서는 여성보

다는 남성집단의 전체적인 자존감이 높을 것이고, 자존감의 하위 척도 중 신체적 측면에서도 남성의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지와 같이 자존감의 하위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지와 한국 성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더 좋을수록, 연령수준이 더 낮을수록 더 높은 자존감을 보일 지를 전국적인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예언이 지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방 법

조사목적 및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전국 단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존감 척도(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및 한영석 미발표)와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79)를 함께 실시하였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인구통계에 따라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20-64세 성인 1318명을 선정하였다. 남성은 657명(49.8%), 여성은 661명(50.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39세가 489명(37.1%), 40세 이상이 829명(62.0%)였으며, 고졸이하가 742명(56.3%), 고졸이상이 576명(43.7%)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보면, 250만원 미만이 637명(48.4%), 250이상-450만원미만이 580명(44.0%)였으며, 450만원 이상이 100명(7.6%)였다.

조사도구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총 78문항이었다(부록 1 참조).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요인에서 내적일

치도 계수가 .647-.875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무선적으로 배치된 자존감의 각 항목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자존감 척도에 대한 집단별 비교의 준거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율성, 환경 지배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긍정적 대인관계 및 자아수용의 총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Ryff의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및 차경호(2001)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이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58문항이었으며, 자존감 척도와 같이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62~.86의 신뢰도를 보였다.

분석방법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자존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test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자존감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자존감의 척도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영역 별 차이분석, 신뢰도 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은 SAS windows용 8.01를 이용하였다.

결 과

하위 집단간 자존감 비교

성별에 따른 비교

성별에 따른 자존감을 비교한 결과 표 1과 같이 11개의 하위영역 중 총 6개의 항목에서 양성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성은 11점 척도상 3.89로 3.8인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3.85, p<.001$). 각 영역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국가자부심', '타인으로부터 인기', '신체적 매력-외모',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에 대해 더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하위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더 높은 자존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에 따른 비교

연령에 따른 자존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 2에서 보듯 전체적으로는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세부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부모에 의한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기'요인에서 '30대이하'가 '40대이상'의 세대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40대이상'이 '0대이하'보다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요인으로는 '국가자부심', '사회봉사'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은 부모,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 인기 등의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표 1.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비교 (단위: M(SD))

	남(n=657)	여(n=661)	전체(n=1318)	t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4.07 (0.56)	4.00 (0.56)	4.03 (0.56)	2.43*
부모에 의한 인정	4.06 (0.66)	4.06 (0.64)	4.06 (0.65)	-0.02
국가자부심	4.11 (0.59)	4.04 (0.56)	4.07 (0.58)	2.42*
사회로부터 인정	4.20 (0.73)	4.27 (0.72)	4.24 (0.73)	-1.57
배우자에 의한 인정	4.14 (0.74)	4.15 (0.81)	4.15 (0.78)	-0.23
타인으로부터 인기	3.53 (0.72)	3.35 (0.76)	3.44 (0.75)	4.50***
신체적 매력 외모	3.84 (0.63)	3.69 (0.64)	3.77 (0.64)	4.39***
자녀에 대한 만족	4.13 (0.47)	4.02 (0.51)	4.08 (0.50)	3.93***
자신의 성취	3.59 (0.76)	3.34 (0.74)	3.46 (0.76)	6.27***
경제력	3.60 (0.67)	3.59 (0.71)	3.59 (0.69)	0.25
사회봉사	3.51 (0.85)	3.42 (0.90)	3.47 (0.88)	1.96
전체	3.89 (0.38)	3.81 (0.38)	3.85 (0.38)	3.85***

a. 전체는 11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이하동일

대한 충족이 자존감을 요소가 반면, 비교적 나이드 집단은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성별비교를 한 결과, 0대이하에서는 전체요인과 하위 요인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40대 이상에서는 전체 척도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자존감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요인에서는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국가자부심’, ‘타인으로부터 인기’, ‘신체적 매력-외모’,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 요인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비교

학력에 따른 자존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자존감 요소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요인에서의 차이를 보면 ‘국가자부심’과 ‘사회봉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영역에서 대졸이상의 집단이 고졸이하의 집단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자존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졸이하의 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존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의 두드러진 차이는 ‘타인으로부터 인기’, ‘신체적 매력-외모’, ‘자신의 성취’에서 나타났

표 2. 연령에 따른 자존감의 비교

(단위: M(SD))

	30대이하				40대 이상				30대이하 vs 40대이상 t
	남 (n=241)	여 (n=248)	전체 (n=489)	t	남 (n=416)	여 (n=413)	전체 (n=829)	t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4.03 (0.52)	4.03 (0.52)	4.03 (0.52)	-0.02	4.09 (0.58)	3.98 (0.58)	4.04 (0.58)	2.96**	-0.22
부모에 의한 인정	4.07 (0.71)	4.14 (0.63)	4.11 (0.67)	-1.13	4.05 (0.63)	4.01 (0.64)	4.03 (0.63)	0.92	2.26*
국가자부심	4.03 (0.58)	4.02 (0.57)	4.03 (0.57)	0.17	4.16 (0.59)	4.04 (0.56)	4.10 (0.58)	2.89**	-2.27*
사회로부터 인정	4.18 (0.74)	4.29 (0.75)	4.24 (0.74)	-1.58	4.22 (0.73)	4.25 (0.70)	4.23 (0.72)	-0.75	0.08
배우자에 의한 인정	4.17 (0.68)	4.26 (0.71)	4.22 (0.69)	-1.47	4.12 (0.78)	4.08 (0.86)	4.10 (0.82)	0.71	2.54*
타인으로부터 인기	3.56 (0.69)	3.48 (0.74)	3.52 (0.72)	1.16	3.51 (0.74)	3.26 (0.76)	3.39 (0.76)	4.78***	3.00**
신체적 매력·외모	3.83 (0.59)	3.79 (0.60)	3.81 (0.60)	0.71	3.85 (0.65)	3.63 (0.65)	3.74 (0.66)	4.90***	1.83
자녀에 대한 만족	4.11 (0.31)	4.06 (0.34)	4.09 (0.33)	1.62	4.14 (0.55)	4.00 (0.59)	4.07 (0.57)	3.59***	0.69
자신의 성취	3.54 (0.75)	3.43 (0.71)	3.48 (0.73)	1.70	3.63 (0.77)	3.28 (0.75)	3.45 (0.78)	6.55***	0.66
경제력	3.56 (0.64)	3.62 (0.73)	3.59 (0.69)	-0.89	3.62 (0.69)	3.57 (0.70)	3.59 (0.70)	0.99	-0.14
사회봉사	3.43 (0.84)	3.33 (0.85)	3.38 (0.84)	1.23	3.57 (0.86)	3.47 (0.93)	3.52 (0.89)	1.50	-2.80**
전체	3.86 (0.35)	3.86 (0.36)	3.86 (0.35)	0.15	3.91 (0.40)	3.78 (0.38)	3.84 (0.40)	4.61***	0.90

다. 반대로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세부 요인에서 남녀의 자존감 지각은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존감을 지각하는 요인은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 ‘사회봉사’요인이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

존감을 지각하는 요인으로는 ‘사회로부터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수준별 비교

응답자들의 경제력 수준을 월평균가구소득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자존감의 정도를 비교한

표 3. 학력에 따른 자존감의 비교

(단위: M(SD))

	고졸이하				대졸이상				고졸이하 대 고졸이상 <i>t</i>
	남 (<i>n</i> =297)	여 (<i>n</i> =445)	전체 (<i>n</i> =742)	<i>t</i>	남 (<i>n</i> =360)	여 (<i>n</i> =216)	전체 (<i>n</i> =576)	<i>t</i>	
자신 타인에 의한 인정	3.98 (0.54)	3.97 (0.55)	3.97 (0.55)	0.22	4.15 (0.56)	4.05 (0.55)	4.11 (0.56)	1.94	-4.60***
부모에 의한 인정	3.97 (0.63)	4.00 (0.61)	3.99 (0.62)	-0.70	4.13 (0.68)	4.17 (0.67)	4.14 (0.68)	-0.69	-4.18***
국가자부심	4.12 (0.57)	4.05 (0.56)	4.08 (0.56)	1.73	4.11 (0.60)	4.01 (0.58)	4.07 (0.60)	1.82	0.10
사회로부터 인정	4.14 (0.71)	4.21 (0.71)	4.18 (0.71)	-1.24	4.26 (0.75)	4.39 (0.71)	4.31 (0.74)	-2.12*	-3.17***
배우자에 의한 인정	4.12 (0.73)	4.06 (0.81)	4.09 (0.78)	0.99	4.16 (0.75)	4.33 (0.80)	4.22 (0.77)	-2.62***	-3.18***
타인으로부터 인기	3.45 (0.73)	3.28 (0.75)	3.35 (0.75)	3.06**	3.59 (0.71)	3.48 (0.76)	3.55 (0.73)	1.83	-4.92***
신체적 매력-외모	3.79 (0.62)	3.64 (0.66)	3.70 (0.65)	3.15**	3.89 (0.63)	3.79 (0.59)	3.85 (0.62)	1.75	-4.28***
자녀에 대한 만족	4.07 (0.48)	4.01 (0.55)	4.03 (0.52)	1.63	4.18 (0.47)	4.05 (0.41)	4.13 (0.45)	3.21***	-3.66***
자신의 성취	3.41 (0.78)	3.23 (0.74)	3.30 (0.76)	3.04**	3.75 (0.71)	3.55 (0.70)	3.67 (0.71)	3.39***	-9.04***
경제력	3.51 (0.64)	3.52 (0.67)	3.52 (0.66)	-0.14	3.66 (0.69)	3.72 (0.79)	3.68 (0.73)	-0.91	-4.34***
사회봉사	3.48 (0.83)	3.45 (0.92)	3.46 (0.89)	0.51	3.54 (0.87)	3.36 (0.84)	3.47 (0.86)	2.44**	-0.19
전체	3.82 (0.36)	3.77 (0.36)	3.79 (0.36)	2.11*	3.95 (0.39)	3.90 (0.40)	3.93 (0.39)	1.34	-6.77***

결과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자존감의 전체 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월평균가구소득 250만원미만보다는 250만원이상-450만원 미만 이 더 높은 자존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250만원이상-450만원미만 보다는 450만원 이상인 집단이 더 높은 자존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에 대해 추후분석 결과, ‘국가자부심’을 제외한 모든 세부요인에서 가구소득

표 4.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른 자존감의 비교

(단위: M(SD))

	250미만(1)				250-450(2)				450이상(3)				F	Scheffe
	남 (n=323)	여 (n=314)	전체 (n=637)	t	남 (n=289)	여 (n=291)	전체 (n=580)	t	남 (n=45)	여 (n=55)	전체 (n=100)	t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3.98 (0.57)	3.92 (0.58)	3.95 (0.57)	1.29	4.13 (0.54)	4.06 (0.53)	4.10 (0.54)	1.64	4.31 (0.46)	4.06 (0.49)	4.17 (0.49)	2.59*	14.23***	3,2>1
부모에 의한 인정	4.01 (0.65)	4.02 (0.64)	4.01 (0.64)	-0.17	4.08 (0.67)	4.09 (0.65)	4.09 (0.66)	-0.25	4.25 (0.66)	4.09 (0.58)	4.16 (0.62)	1.29	3.12*	3>1
국가 자부심	4.09 (0.58)	4.04 (0.58)	4.07 (0.58)	1.13	4.13 (0.60)	4.03 (0.56)	4.08 (0.58)	2.10*	4.16 (0.60)	4.04 (0.54)	4.10 (0.57)	1.02	0.13	1=2=3
사회로부터 인정	4.23 (0.73)	4.28 (0.68)	4.25 (0.70)	-0.89	4.15 (0.75)	4.22 (0.78)	4.18 (0.77)	-1.18	4.42 (0.63)	4.47 (0.57)	4.45 (0.60)	-0.43	6.07**	3>2,1
배우자에 의한 인정	4.16 (0.72)	4.09 (0.76)	4.13 (0.74)	1.12	4.09 (0.75)	4.17 (0.85)	4.13 (0.80)	-1.29	4.37 (0.85)	4.37 (0.86)	4.37 (0.85)	-0.02	4.38*	3>2,1
타인으로부터 인기	3.42 (0.74)	3.30 (0.76)	3.36 (0.75)	2.00*	3.63 (0.67)	3.39 (0.76)	3.51 (0.73)	3.99***	3.67 (0.83)	3.33 (0.71)	3.48 (0.78)	2.24*	6.63**	2>1
신체적 매력-외모	3.74 (0.61)	3.61 (0.67)	3.67 (0.64)	2.58**	3.94 (0.62)	3.77 (0.61)	3.85 (0.62)	3.29**	4.00 (0.69)	3.74 (0.57)	3.86 (0.64)	2.12*	13.85***	3,2>1
자녀에 대한 만족	4.07 (0.46)	3.98 (0.54)	4.03 (0.50)	2.40*	4.19 (0.49)	4.05 (0.48)	4.12 (0.49)	3.57**	4.13 (0.42)	4.14 (0.50)	4.13 (0.46)	-0.10	6.20**	2>1
자신의 성취	3.45 (0.74)	3.26 (0.76)	3.36 (0.76)	3.22***	3.70 (0.75)	3.40 (0.71)	3.55 (0.74)	4.96***	3.91 (0.86)	3.39 (0.73)	3.63 (0.83)	3.26**	12.28***	3,2>1
경제력	3.49 (0.65)	3.39 (0.64)	3.44 (0.65)	2.13*	3.65 (0.69)	3.69 (0.69)	3.67 (0.69)	-0.72	3.97 (0.63)	4.17 (0.81)	4.08 (0.74)	-1.32	46.75***	3>2>1
사회봉사	3.45 (0.85)	3.35 (0.91)	3.40 (0.88)	1.40	3.55 (0.82)	3.49 (0.90)	3.52 (0.86)	0.87	3.73 (0.98)	3.42 (0.81)	3.56 (0.90)	1.75	3.60*	3>1
전체	3.83 (0.37)	3.75 (0.37)	3.79 (0.37)	2.65***	3.93 (0.38)	3.85 (0.37)	3.89 (0.37)	2.56*	4.08 (0.40)	3.93 (0.39)	4.00 (0.40)	1.97	20.01***	3>2>1

이 높을수록 자존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한 개인의 자존감 지각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신체적 매력-외모’, ‘자신의 성취’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기’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450만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대한 바와 같이 ‘경제력’ 요인은 하위 3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로부터 인정’, ‘사회봉사’ 요인은 250만원 미만과 450만원 이상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만족', '타인으로부터 인기'요인은 250만원 미만과 250만원이상-450만원 미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 비교

자존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거나 예견하는 중요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러한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존감의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 점수를 준거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집단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7개의 변인이 응답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의 절반을 넘는 62%를 설명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이었고 다음으로 '사회로부터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경제력', '신체적 매력 외모', '자신의 성취', 및 '타인으로부터 인기'가 중요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성집단 비교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요약되어 있듯이 남성의 경우,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사회로부터 인정', '경제력', '배우자에 의한 인정', '신체적 매력'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변인은 남성들의 삶의 만족도의 변량을 약 64.6%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에게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5개 요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성취'와 '국가자부심'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상대적 중요도 또한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가장 설명변량이 높은 요인은 남성과 같이 '자신 타인에 의한 성취'였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에 의한 인정', '사회로부터 인정', '자신의 성취', '경제력', '신체적 매력-외모', 및 '국가자부심'

표 5. 전체 집단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Step	변인	ΔR^2	R^2	$C(p)$	F	β
1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404	.404	738.85	893.58***	.468
2	사회로부터 인정	.160	.564	190.03	482.23***	.274
3	배우자에 의한 인정	.033	.597	78.11	107.83***	.199
4	경제력	.014	.611	31.31	47.84***	.131
5	신체적 매력 외모	.006	.617	13.54	19.65***	.071
6	자신의 성취	.002	.619	10.09	5.44*	.048
7	타인으로부터 인기	.001	.620	9.22	2.87+	.041

표 6. 성별 집단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Step	변인	ΔR^2	R^2	$C(p)$	F	β
남성	1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420	.420	409.52	474.89***	.480
	2	사회로부터 인정	.171	.591	98.13	273.59***	.272
	3	경제력	.037	.628	32.26	65.06***	.190
	4	배우자에 의한 인정	.013	.641	11.36	22.68***	.149
	5	신체적 매력 외모	.005	.646	3.77	9.63**	.090
여성	1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384	.384	355.85	410.46***	.434
	2	배우자에 의한 인정	.165	.549	86.23	241.12***	.259
	3	사회로부터 인정	.033	.582	33.41	52.47***	.237
	4	자신의 성취	.010	.592	19.15	15.92***	.092
	5	경제력	.004	.596	15.049	6.02**	.074
	6	신체적 매력 외모	.003	.599	12.787	4.22*	.071
	7	국가자부심	.003	.601	10.70	4.07*	.0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의 변인들은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변량을 약 6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집단을 비교할 때 독특하게 나타난 요인은, 남성과 달리 여성집단에서 '자신의 성취'와 '국가자부심'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성에게서 '자신의 성취'와 '국가자부심'이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도출한 것은 다른 심리적 안녕감요인과의 관련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여성에게서 이들 요인은 다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덜 받는 독특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남성에게서 이들 요인은 다른 자존감요인과의 관련성 때문에 중다회귀분석결과 의미있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경우 64.6%의 설명력으로 5개의 자존

감이, 여성의 경우는 60.1%로 7개의 요인이 관련됨을 보인 것이다. 이는 여성에 비하여 남성은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단순한 그리고 보다 고정관념적인 요인들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논 의

한 개인의 자존감을 파악하고 관련변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왔다. 최근 들어 국내의 연구자들도 한국인의 자존감 정도를 밝히고 한국인의 자존감이 어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양 문화권에서 제기

된 연구의 틀을 그대로 따르거나 기존연구들에서 사용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인 고유의 자존감이 어떤 양상인지를 밝히는데 큰 한계를 보였다. 또한 국내에서 제기된 자존감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며, 이들과 질적으로 다른 유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개인의 자존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밝힌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인의 자존감의 정도를 밝히는데 있어 한국인의 자존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새롭게 제작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자존감을 느끼는 삶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고, 지각하는 자긍심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전체 값을 이루는 하위요소들은 자존감을 이루는 구체적인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전체평균에서는 성별, 학력, 월평균소득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성인들 중 남성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자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신 타인에 의한 인정, '국가 자부심', '타인으로부터 인기', '신체적 매력-외모', '자녀에 대한 만족', '자신의 성취'에 대해 더 자존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자존감을 느끼는 하위 요인은 없었다. 이는 유엔에서 조사한 남녀권한지수 등에서 보인 차이가 자존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 간에 전체적인 자존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배치된다. 즉, 남성과 여성에서 자존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존감을 재는 척도 상에 응답한 유치원생으로부터 대학생 집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자존감의 수준은 동일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데도 자존감의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남녀 모두가 사회에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는 가정을 하였다. 역할은 서로 다르고 평등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은 같은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비교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자존감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상대적인 비교의 대상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이상적인 여성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성은 이상적인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교집단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려면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두 성의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연령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하위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부모에 의한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기'요인에서 '30대 이하'가 '40대 이상'의 세대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국가 자부심', '사회봉사'요인에서 더 자존감

의 원천을 찾았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은 부모,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 인기 등의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나이든 집단은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수준에 따른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자존감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 자부심과 사회봉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영역에서 대졸이상의 집단이 고졸이하의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 성별 차이를 보면 고졸이하의 집단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자존감을 지각하였는데 '타인으로부터 인기', '신체적 매력 외모', '자신의 성취'에서 두드러졌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존감 비교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범주별로 보면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신체적 매력 외모', '자신의 성취' 요인은 월평균가구소득 250만원을 기준으로 '배우자에 의한 인정', '타인으로부터 인기' 요인은 월평균가구소득 450만원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존감 변인은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이었고 다음으로 '사회로부터 인정', 배우자에 의한 인정, '경제력', '신체적 매력 외모', '자신의 성취', 및 '타인으로부터 인기'가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성별로 상대적 중요도 선정에서 차이를 보였고, 60%의 설명력에 소요되는 변인의 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보다 고정관념적인 요인들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의 정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문항들로 자존감의 척도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응답자들의 반응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대한 보다 타당한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설문 조사가 전국적 분포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충분히 고르게 혹은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시사하듯이 여러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상이한 자존감 요소가 부각되었으므로 남녀, 연령, 경제 수준, 학력 수준 등 인구학적 하위 집단 별로 독자적인 자존감 측정도구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자 (2000).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한국생활과학회지, 9(4), 421-428.
- 곽금주·김근영 (1996).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 개념연구(I):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인간발달연구, 3(1), 1-14.
- 곽금주·김근영 (1997).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김기정·이건만 (1995). 자아개념의 발달적 변화. 김기정, 자아의 발달(pp. 233-287). 서울: 문음사.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문혜 · 강문희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화 · 김경연 (1993). 아동의 자아존중감: 구성영역과 발달. *아동학회지*, 14(1), 129-140.
- 김희화 · 김경연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성별차이와 발달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7(5), 1-17.
- 양계민 · 정진경 (1993). 자신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93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67-74.
- 이주리 (1994). 아동의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193-208.
- 이진화 · 전경숙 (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5.
- 전방지 (1998). 국제지표와 한국의 성불평등. *여성과 사회*(9), 10-22. 창작과 비평사.
- 정재구 · 선미영 (1996). 호서대학생들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2), 47-68.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1), 7-26.
- 홍기원 · 김명소 · 이종택 · 한영석 (2004). 한국 성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3), 33-52.
- 홍성열 (1998). 범죄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탐색. *교정연구*(8), 213-236.
- Anderson, D. Y., & Hayes, C. L. (1998). *Gender, identity, and self-esteem*. Springer.
- Anderson, E. (May 1994). The code of the stress. *Atlantic Monthly*, 273, 81-94.
- Baumeister, R. F., & Tice, D. M. (1985). Self esteem and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Subsequent performance and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3, 450-467.
- Cooley, D.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Charles Scribner's sons.
- Diane, R. N., & Ruble, D. N. (1986). The acquisition of self-knowledge: A self-socialization perspective. In Eisenberg N. (Eds), *Contemporary topic i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270, New york: Wiley.
- Erez, A. Judge., & Timothy, A.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s traits, 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1270-1279.
- Gondolf, E. W. (1985). *Men Who Better*. Holmes Beach, FL.:Learning Publishing Co.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 system.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275-385), New York: Wiley, 1983.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 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LaGreca(Ed.), *Through the eyes of a child*(pp 292-325), Boston: Allyn and Bacon.

- Kirschner, D. (1992) Understanding adoptees who kill: Dissociation, parricide and the psychodynamics of ado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6, 323-333.
- Knoff, H. M. (1983). Personality assessment in the schools: Issues and procedures for school psychologists. *School Psychology Review*, 12, 391-398.
- Lips, H. M. (1999). *A new psychology of women*. Mayfield.
- Long, E. E. (1990). *The Anatomy of Terrorism*, N. Y.: Free Press.
- MacDonald, J. M. (1975). *Armed Robbery Offenders and Their Victim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n.
- Martin, M. J. (1985). *An investig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affec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Olivarez, J. R. (1985). *Behavior ratings and school performance of Black, Caucasian, and Hispanic elementary mal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Lansing.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tanford, I. T., & Donovan, M. E. (1978). *Women & Self-esteem: Understanding & Improving the Way We Think & Feel about Ourselves*.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
- Shavelson, R. J., Huber, J. J., & Stanton, G. C. (1976). Self 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 407-441.
- Smith, P. G. (1985). *Classroom behavior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 teacher, and parent perceptions of elementary SBH and SL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Tucker, M. D. (1985). *Academic achievement, physical fitness performance, and behavior ratings of sixth grade pupils with varying chronological ag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 UNDP (1995). *Human Development Report*.
- UNDP (1997). *Human Development Report*.
- Wiehe, V. R. (1991). *Perilous Rivarly: when siblings become abusive*, Lexington-ton. M. A.: Heath/Lexington Books.
- Wigfield, A., Exx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 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 Wylie, R. C. (1979). *The self-concept: Vol.2.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Differential Self-Esteems of Korean Adults by Demographic Variables

Kiwon Hong

Hoseo University

Youngseok Han

Kwangwun University

Nation-wide samples of 1318 were surveyed to measure differential self-esteems by demographic categories. Self-esteem questionnaires and psychological-wellbeing items were filled out in surveys to identify different self-esteems by gender groups, education levels, economic levels, and age groups. Korean males have higher self-esteems than females in terms of overall level composed by 11 factors. More educated persons have higher than less educated ones, more males showed higher than less males in self-esteem measure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And there were different factors or dimensions of self-esteems were concerned by demographic variables. Also there were different patterns of self-esteem factors (in different numbers and contents), which explaining more than 60% of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evidenced between both genders. More stereotypic factors were endorsed by males compared to females. Plausible other explanations of unexpected results were discussed and follow-up researches were suggested.

key words :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demographical variables

1차 원고접수: 2005. 5. 10.

심사통과접수: 2005. 6. 8.

최종원고접수: 2005. 6. 15.

부록 1. 자존감 척도의 확인적요인분석, 탐색적요인분석 결과(요인계수 행렬표) 및 신뢰도계수

자존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전체자료 1318명 중 528명 대상)

	<i>NFI</i>	<i>NNFI</i>	<i>GFI</i>	<i>AGFI</i>	<i>RMSEA</i>	<i>CFI</i>
11 요인 모형	.92	.94	.90	.87	.055	.95

자존감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계수(전체자료 1318명 중 791명 대상)

문 항	요인 계수	<i>b</i> ²
요인 1 : 자신-타인에 의한 인정 ($\alpha=.875$)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생의 좋은 본보기로 생각한다	.611	.452
여러 곳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서로 오라고 한다	.580	.362
다른 사람들에게 꽤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562	.424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격을 부러워한다	.547	.370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537	.354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품과 인격을 존경한다	.537	.367
내가 이 세상에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28	.366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14	.368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편이다.	.489	.316
직장 또는 가정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489	.333
나의 동료나 친구, 친척들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488	.300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고 있다	.462	.267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나를 신뢰한다	.391	.315
주위에서 우리 집안을 부러워한다	.330	.328
요인 2 : 부모에 의한 인정 ($\alpha=.719$)		
나의 부모님은 나를 믿고 인정해 주신다.	.558	.391
평소에 부모님과 가깝게 지낸다	.521	.350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46	.313
나의 부모님은 남들 앞에서 나의 자랑을 많이 하신다	.415	.306
나는 부모님께 효자 혹은 효녀라는 소리를 듣는다	.405	.315
요인 3 : 국가자부심 ($\alpha=.647$)		
우리나라(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36	.368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482	.270
우리나라 제품 중 세계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430	.220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05	.233
해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398	.185
스포츠팀이 외국팀을 이길때 내가 이긴 듯이 기쁘다	.360	.206

요인 4 : 사회로부터 인정 ($\alpha=.850$)		
나의 고향으로 인해 차별을 많이 받은 적이 있다(R)	.702	.554
나의 출신학교로 인해 피해 본 경험이 있다(R)	.640	.492
출신지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R)	.591	.378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학연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R)	.570	.395
직장사회에서 학력이 낮다고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R)	.557	.398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묵살 당한 경험이 있다(R)	.554	.425
어린 후배나 후하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R)	.513	.466
이성(異性) 동료에 비해 승진을 늦게 한 경험이 있다(R)	.476	.239
잘못의 책임을 나 혼자 뒤집어쓴 경우가 종종 있다(R)	.385	.245
요인 5 : 배우자에 의한 인정 ($\alpha=.829$)		
나의 배우자(또는 애인)가 나를 무시할 때가 많다(R)	.677	.507
나의 배우자는 나의 능력을 낮게 본다 (R)	.630	.449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다 (R)	.615	.440
배우자는 우리 집안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다(R)	.605	.445
나의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고 간섭한다(R)	.593	.410
배우자는 싸우다가 나의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R)	.588	.396
요인 6 : 타인으로부터 인기 ($\alpha=.777$)		
오락이나 여흥 시간에 인기가 있다	.711	.532
나는 친구들보다 가무(노래, 춤 등)에 뛰어나다	.678	.497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고 한다	.538	.358
남에게 보여줄(자랑할) 장기가 많다.	.529	.331
미팅을 하면 인기가 매우 좋은 편이다	.413	.339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359	.246
남들로부터 외모가 멋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642	.492
남들로부터 옷맵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다	.562	.407
요인 7 : 신체적 매력 외모 $\alpha=.772$)		
젊게 산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524	.306
이성에게 내보이고 싶을 만큼 당당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446	.311
나는 성적 매력이 있다	.444	.388
나는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04	.169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	.395	.178
나는 웃음이 매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384	.286

요인 8 : 자녀에 대한 만족 ($\alpha=.777$)		
나의 자녀들은 나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586	.445
자녀들은 나를 괜찮은 어른으로 존경한다	.579	.460
나의 자녀는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560	.405
자녀들은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자라고 있다	.536	.353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많이 닮아서 흐뭇하다	.498	.324
나의 자녀는 외모가 뛰어나다	.438	.300
나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414	.251
자녀가 좋은 집안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다	.278	.163
요인 9 : 자신의 성취 ($\alpha=.744$)		
학교나 회사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다	.565	.455
학창시절 내가 매우 우수한 학생이(였)다는것을 남들도 인정한다	.553	.433
각종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합격하는 편이었다	.458	.389
외국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392	.321
직장, 학교나의 지위는 순조롭게 올라간(갔다)	.323	.296
요인 10 : 경제력 ($\alpha=.755$)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어 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	.650	.465
부조나 축하금을 낼 때 많이 낼 형편이 안 된다	.637	.450
가족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줄만한 경제력이 있다	.499	.475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할 때 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	.498	.324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턱낼만한 여유가 없다	.486	.322
나는 다른 형제들 보다 못사는 편이다	.461	.349
나의(혹은 내 배우자의) 연봉은 동창들에 비해 낮다	.326	.276
요인 11 : 사회봉사 ($\alpha=.802$)		
사회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여 남을 돕는다	.509	.562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421	.487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다	.398	.436
불쌍한 사람을 기꺼이 돕는다.	.291	.406